

33. 지못미, 순채. 30년 된 순채 순 하나 얻다. 끝내 지켜내지 못한 예산의 순채

지성이면 감천? 그럴 거면 나는 백번이고 지성을 다 했을 것이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권 선생이 탄식처럼 쏟아낸 말이다. 그런데 나는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느 날, 권 선생하고 연락이 닿았다.

예산에 순채를 기르던 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소문하기 시작한 지 몇 달째 되던 날이었다.

순채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순채는 연의 사촌쯤 되는 어항마름과의 수생식물이다. 줄기에 젤리 같은 점액질이 덮여 있어 잡으면 미끄러지처럼 잘 빠져나간다. 중국 고사에서 모든 복잡하고 바쁜 벼슬 생활에 염증을 느낀 선비들이 고향에 내려가고 싶은 욕망 속에 있는 꿈의 음식이었다. 맛이 대단하다고는 하나 그것은 아마 귀한 분들 입맛에만 그랬는지, 일반 서민들은 구황식물 정도로 쓰였다.

먼저 귀한 분들 이야기하자면 연산군의 입맛이 단연 돋보인다. 순채를 좋아한 나머지 각 지역에 벼슬 직을 걸어놓고 진상품을 올리게 한다. 그런데 이놈의 순채라는 게 여름 음식인데다가 얼마나 빨리 상하는지 궁궐에 도착하기 전에 썩어버리는 것이다. 연산군의 진노가 하늘을 찌르고 벼슬이 땅강땅강 바람 앞의 촛불이라, 대신 군현에서는 상하지 않은 채 진상할 수만 있으면 출세의 지름길이 되었으니 온갖 기발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한다.

군왕이 이러했으니 신하인들 어땠으랴. 기록에 의하면 당대 최고의 미식가였던 영조 사위 흥현주는 정다산의 여유당 집에서 농어와 함께 순채를 먹고는 감탄했다 하고, 성호 이익은 신선의 맛이라 감탄하고, 목은 이색도 순채를 사랑하는 사람 중의 하나였다.

앞서간 사람들의 순채 사랑을 모를 리 없던 추사 선생 또한 순채 맛에 깊이 감동했다는데, 아마 그 맛과 함께 순채에 나타나는 낙향에 대한 꿈이 더 정겨웠게 다가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천에는 아마 순채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가깝게 다산의 동생인 정학연이 사는 양주의 여유당에 순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더구나 그곳에는 순채와 궁합이 제일 잘 어울리는 농어까지 있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 선생은 노구를 이끌고 배를 타고 양주까지 당도하여 순채를 먹을 정도로 좋아했다.

그러나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잘해야 여름 보양식 정도였다. 흔한 게 연못이고, 연못에 가면 아무 곳이나 널려 있는 게 순채였다. 물김치, 죽, 된장찌개 정도면 입맛을 잊었을 때 특별식으로 먹었을까. 차라리 질편한 연못을 들어갈 바에야 미끄러지를 잡아 추어탕을 끓여 먹지 미끈거리고 는적대는 순채를 따 호록호록 마실까. 진상품이 아니면 대접받을만한 위치에 있질 못했다.

딱 일본인이 좋아할 음식이었다. 이런 순채를 일본인들이 가만 놔둘 리 없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며 유난히 순채를 좋아하던 일본인들이 짹쓸이해가기 시작하면서 귀한 대접을 받았다. 돈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나기 쏟아지는 날 번개 없어지듯 순식간에 순채가 없어졌다.

박물관에서 순채를 찾기 시작했다. 예산의 토종 자생식물이기 때문이었다.

예전에는 순채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심지어 논에서도 재배할 정도였다. 그것은 당시에는 논도 제초제 등에 전혀 오염이 안 됐기 때문이다. 예산에서 순채를 마지막으로 본 때는 1980년대였다. 삽교읍 작은 방죽에 순채를 심어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었다.

예산 지방, 특히 오가 삽교 지역은 예로부터 방죽이 많았다. 이 지역이 넓은 들인 데다가 산이 낮아 물이 없고 특히 냅가가 전답보다 낮아 논에 물을 댈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방죽에 농사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방죽을 만들면 농사 채가 줄어 이 또한 고민이었는데 이 때문에 송사도 빈번히 벌어졌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한 지혜가 방죽에 수생 식물을 가꾸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수생식물들은 연이나 마름들이었다. 그리고 바로 순채였다.

이곳에 예전부터 순채가 자생했다. 순채는 청정한 곳이 아니면 살 수 없고, 특히 금속물질에는 살 수 없는 식물이다. 순채의 자생 조건은 청정 지역, 황토물이 최적의 조건이었는데, 바로 효림리 방죽이 그런 곳이었다. 그 방죽은 지금처럼 예당저수지가 없을 때는 그 마을의 요긴한 수원지였다.

삽교로 가는 큰길에 효림리 방죽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단지 방죽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누가 심었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도 찾아야 했다. 내가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건너서 알 수 있는 사람까지 동원해 호구조사를 해서 겨우 누구라는 것을 알아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2년은 흘러갔을까. 다시 연락을 취했다. 마찬가지로 답이 없었다.

그런 중간중간에 순채를 찾아 전국을 헤맸다. 제주 한라산 생태숲, 제천 의림지, 김제 벽골제, 고성까지 돌아다녔다. 한뿌리라도 분양받을 수 있을까 하고 다녔지만 허사였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우연히 전화를 받았는데, 들어오라는 것이다. 사모님이 전화를 받은 것이 다행이었다.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터뷰를 어렵게 권영덕(가명. 82세, 1939년생) 선생을 만났다. 카메라를 가지고 갔으나 어림도 없었다. 워낙 손사래를 쳐 사실은 이름을 밝히는 것도 죄송스럽다.

권 선생은 평생을 공직으로 사신 부인과 지금까지 정정한 기운을 가지고 계셨다. 삽교가 고향이고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한 풍채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권 선생이 순채와의 만남은 아주 우연이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태권도 사범을 하고 있을 무렵, 외국에 사법으로 나갈 기회가 있었지만, 결혼할 사모님이 외국 가는 것을 싫어하여 좋은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린 순정파이기도 했다.

권 선생이 순채를 만난 것은 친구가 순채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순채 생산지인 김제에서 순채를 채취해서 무역업을 했는데, 예산에 자생한 순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접근했다. 예산 순채가 다른 지역보다 품질이 좋아 자신도 이곳 순채를 무역하고 싶다며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미 전라도 사람들이 선점하고 있었다. 방죽을 값싸게 세 얻어 중개인에게 팔고 있었는데, 마침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자 권 선생에게 그것을 하라고 권하면서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이정식이란 방죽 주인과 협상하에 쌀 100작 정도를 임대료를 주고 그 사업이 시작하게 된다. 나중에는 임대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방죽을 인수하기도 했다.

순채의 모양은 잎새는 숟가락만 한 타원형인데, 그런 색, 줄기는 부라운 색이다. 잎에 우무 같은 끈적이는 물체가 붙어있다. 그 잎이 성냥개비만 하고 잎이 돌돌 말릴 때는 채집한다. 이때 반드시 쇠 도구가 아닌 손톱으로만 따야 한다. 나무배를 타고 방죽을 돌아다니며 5월부터 7월까지 채취했다. 한때 순채 채집하는 아녀자들이 20여 명에 이르기까지 했다.

수출할 때는 순채를 삶아서 빙초산에 타서 일차 보관하여 일본 고베 지역으로 보냈다.

그러던 중에 방죽 위쪽으로 헬기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때부터 두 부부의 외로운 사투는 시작됐다.

순채는 환경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쇠하고는 상극이라 따는 것조차 칼을 대지 않고 손으로 딴다. 그런데 쇠붙이를 다루는 헬기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순채를 죽이는 일이고, 평생을 바친 그들을 죽이는 일이었다. 같이 싸워줄 동지들도 없었다. 그들이 밀고 기댈 곳은 행정밖에 없었다. 그러나 행정은 그들의 하소연을 외면했다. 차라리 퇴수구라도 돌려 내달라고 건의했지만, 물길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급기야는 헬기장이 들어섰고, 첫물이 들어오자마자 순채는 예상한 대로 하루아침에 뿌리까지 삭아 버렸다. 순채가 자생하는 다른 곳을 찾아 헤맸지만, 그것은 절망에 기댄 쓰잘머리 없는 몸부림이었을 뿐이다. 결국 두 부부는 절망마저 포기하고 말았다.

오랜 사투의 끝이었고, 이 사투가 소득 없이 끝날 무렵 부부에게는 사람 기피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칠 대로 지친 고된 정신을 겨우 이끌고 하느님을 찾았다.

그렇게 없어진 예산의 순채였다.

사모님은 지금도 순채, 아니 행정에 실망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순채를 찾는다는 우리에게 불친절하셨는데, 그 마음은 알고도 남았다.

오랜 인터뷰를 마치고 집을 나오는데, 우리를 붙잡았다. 사진도 찍고 차를 내올 테니 마시고 가라 하신다. 그리고 사모님이 차를 내오신 쟁반에는 작은 박카스 병이 올려져 있었다.

-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뗄 때 남긴 순채여.

사모님은 40년이 훌쩍 넘긴 순채를 나눠주시었다. 그분들이 주신 순채 병에는 두 분의 인생뿐 아니라 기쁨, 억울, 원망, 한 등이 담겨 있었다.

추신, 놀라운 일이 벌어지다.

원고를 출판사에 올려보내고 며칠 쉬고 오자는 생각으로 충북 제천으로 여행을 떠났다. 국민연금으로 살자고 맘먹고 시작한 박물관이었는데, 마침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는 호텔이 많은 할인 혜택을 준다니 이용해보자는 심사였다.

제천으로 가는 중간에 잠시 지인도 만나고 중앙탑도 볼 겸 잠시 충주에 들렀다. 한두 가운데 둘러보고 차한 잔 마시다가 우연히 순채 이야기가 나왔다. 그날 화제는 제천에 가니 예전에 순채가 자생했었다는 의심지도 볼 것이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됐다.

사실 예산에서 순채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으로 어디든 순채를 지키는 곳이 있으면 찾아볼 생각으로 순채 자생지를 찾아다녔다. 물론 의심지만 뻬는데, 이는 의심지자 생지가 흥수에 의해 멸실 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순채 음식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중국산 순채를 쓴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년은 찾아다닌 것 같다. 제주에서 김제, 상주까지. 드디어 제주, 고성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둘 다 모두 저수지 한 가운데에 있어 사진 말고는 확인할 수는 없었다. 순채가 멸종위기 생물 2급의 보호종으로 희귀식물이 되다 보니 철저한 보호 아래 민간인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었다.

그런데 지인께서 제천 관광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순채 이야기를 흘렸는데, 그 순채가 제천의 한 초등학교 연못에 자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행을 멈췄다.

팔자는 팔자다!

순채를 찾아 순채 원고를 쓰려고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원고를 마감하고 나니 순채가 자생하고 있다니,

한달음에 제천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다. 학생들이 주변에 놀고 있었다. 물어보기 위해 접근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대수롭지 않게 순채 이야기를 한참이나 해주었다. 그들의 학교에서 순채가 지켜지는 것이 뭐 대수냐는 듯했다. 그냥 ‘학교 연못에 연꽃이 피어요’라는 정도의 하찮은 대수로움이었다. 그들이 우리를 이끌고 간 곳은 학교의 작은 연못이었다.

뭐라고? 저곳에서 순채가 자생한다고!

그럴 리가 없었다. 연못은 매우 적었다. 더군다나 사방이 시멘트로 상자갑을 만들어 놓았고, 겨울이라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었고, 그 바닥은 이미 다른 수생식물들이 장악하여 겨울을 나고 있었다. 봄이 되어 물이 찬다고 해도 물의 유입은 어디인지, 또 나가는 곳도 애매하여 전혀 들고 남아 없이 고여 있는 물 같았다. 최고의 친환경을 요구하는 순채가 자생하기에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다.

무엇인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교무실을 찾았다. 그러나 교무실에 계신 선생님들도 알고 있는 게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신기해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보였는지 모른다. 다만 그들이 한 분을 소개해주셨는데, 지금은 단양에 있는 교육 지원청에 계신 강창원 선생님이었다. 그분이면 알고 있지 않을까 했다.

전화로 잠시 인사하고 다시 단양을 향했다.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우리가 순채를 찾는 것만으로도 금세 친해질 수 있었다. 순채를 보호종을 지정한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순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민간인이 이랬으니 오죽했으랴만 그는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매우 친절했다. 그러나 그 친절에는 그의 눈물겨운 순채 지키기의 여정이 숨어있었다. 한 분 선생님의 열정이 또 한 종의 보호 식물이 지켜지는구나!

(순채가 학교 연못에 자생하게 된 경위)

그는 자연과학에 많은 관심과 지식이 있었다. 그가 초등학교에 발령하고 나서 놀란 것은 순채가 학교 연못에 방치돼 있다는 것이었다. 그게 자연이라면 순리대로 다른 수생 식물에 치이거나 또 사람들의 간섭에 소멸하는 것만 남아 있는 듯했다.

그때부터 그의 순채 지킴이는 시작됐다. 우선 환경청에 순채 자생지를 신고하고 보호종으로 지정받는 것이 시급했다. 2015년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2018년에야 『멸종위기 야생식물 순채 서식지』 안내판을 설치했고, 순채 서식지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또한 제천시에 지금의 열악한 조건에서는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니 시급히 조건 정비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선생님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스스로 순채 자생 조건에 맞춰가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연못 내에 있는 순채 자생에 방해되는 다른 수생식물들을 걷어냈다. 연못의 내부 조건을 변화시켰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다른 곤충들이 몰려들어 ㅂ.....어느해 매미들의 우하한 모습은 장관을 이뤄냈다. 더불어 순채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번식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순채 자생조건에 맞는 물의 순환과 자연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비오톱을 학교 뒷 동산에 설치해 그 물의 일부를 연못에 끌여들이는 일을 했다.

순채의 보호는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학교이니 만큼 학생들의 도움이 절실했다. 선생님은 동아리를 만들어 중요성을 홍보하고 콘테스트 등을 통해 학생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그 덕분에 순채는 계속 번식하고 있었다.